

‘우이산호 기름유출’ 13일째... 파괴된 해양생태계 복원 기약이 없다



여수시 삼일동 선덕마을 앞 해변에서 방제작업에 투입된 해경, 군, 자원봉사자들이 해안에 낀 기름때를 부착포로 제거하는 ‘갯둑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 1월 31일 오전 여수시 삼일동 선덕마을 주민 김순영(가명·여·63)씨는 집앞에 위치한 원유 저장고가 터진 줄 알고 뛰어 나왔다가 약취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가족들 건강에 좋지 않을까 설 쇠로 서울에서 내려온 자녀들도 바로 울러보냈다. 김씨 등 지역주민들은 이후 설 명절, 음식상도 물리고 가족들과 기름 제거 작업에 나섰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진 지 13일째로 접어들면서 방제 작업에 나섰던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 복구에 나섰다든가 두통·어지럼증·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개개인 건강 뿐 아니라, 파괴된 생태계가 언제 복원될 지 기약이 없다는 점에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높다.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로 16만 8에 달하는 원유·나프타 등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여수·광양과 남해·하동군 등 27개 마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기름 유출량은 더욱 늘 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복원, 얼마나 걸릴까=환경 전문가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 기름 유출량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 예상 시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 시일 내 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HEBELI SPIRIT)호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원유 1만2547t가 유출됐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3915건의 해양오염사고로 유출된 기름(1만234kt)보다 많다.

사고 이후 태안을 비롯, 신안 임자·하조·중도와 무안·영광 지역 등 전남 3개 군 32개 섬이 기름 피해를 입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원유 제거 작업 이후에도 원유가 종화작용으로 고형화되는 ‘타르 덩어리(일명 오일 볼)’가 해저에 가라앉아 이동, 사고지역에서 약 330km 떨어진 제주시 조천읍 다려도 해안에서 한 달 뒤 발견되는 등 국내에서 광범위한 오염 피해가 현실화됐다.

국토해양부가 태안 사고 직후 태안 등 72개 지역에서 갯벌과 바닷물 등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해양오염 영향조사’에는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고 이후 바닷물의 TPH(총석유계탄화수소)농도는 평균 720ppb로 관측, 환경기준(10ppb)의 72배까지 높게 나타났고 기름에 함유된 발암물질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우선 감시 오염물질’로 지정한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32개 지점 중 84%가 미국 기준치(3.8ppb)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기름 피해를 입은 양식장 어패류의 훼손도 심각했다. 당시 태안군 의항리에서 채집한 어류의 PAHs 농

여수·광양 등 27개 마을 피해... 부실한 현행 관련법 개선 시급 방제작업 나선 봉사자·주민들 건강악화... 치료대책 논의돼야

도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평균 2~5배 높았다. 갯벌에서 채취한 굴에서는 PAHs에 포함되는 알킬-PAHs 농도가 사고 이전 만리포(2001년·207 ppb) 측정 결과보다 무려 40~500배 이상 높게 나왔다. 현재도 평균 10~33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바다 생태계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은 지난 6일 긴급영향조사에 착수, 여수·광양만 일대 21개 지점에서 표착유, 퇴적물, 어패류 시료를 채취해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신덕마을 등이 지난 1995년 ‘스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임을 들어 “누적된 기름 피해로 인해 생태계 파괴 범위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설명 유출된 기름이 적다고 하더라도 쉽게 넘길 수 없다는 얘기다.

“스프린스 사고 이후 땅을 파면 아직도 기름이 묻어 나온다”는 주민들도 있는 만큼 이번 사고로 2차 피해가 불가피한데다, 피해 회복 속도도 훨씬 더딜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1995년 ‘스프린스’ 사고 이후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지난 1996년~2000년 여수 소리도, 금오

도 등의 유류 분포 분석 결과, 기름층이 1년 새 약 10~20cm 가량 밀로 내려온 점을 확인했다. 최영운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스프린스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여수 지역에 추가로 유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안생태계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주민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대책 마련해야=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이후 현장 방제 작업은 부실하게 이뤄졌다. 방제복·마스크 등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투입되는 지역민들이 있는가 하면, 안전 교육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작업에 나선 경우도 적지 않았다.

취급된 원유 성분을 고농도로 오래 들이마실 경우 급성인후두염이나 기관지염 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또 미국 연방 직업안전보건국은 기름과 같은 유해물질이 퍼진 위험한 곳에서 작업할 경우 40시간의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기름 제거 작업에 나섰다든가 구토·두통 증세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수백명에 달했다.

태안환경보건센터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환경보건백서’를 통해 사고 이후부터 2008년 8

월까지 태안 기름유출 현장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7만5955명으로 집계했다. 두통·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가 4만7548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피부질환 환자(3810명·5%) 등이었다.

태안군 보건당국은 초기 방제작업에 투입되면서 직접적인 대피나 방제교육이 되지 않아 기름의 독성에 노출되면서 나타난 1차 피해 증상으로 추정했다. 이번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방제 작업에 나섰다든가 치료를 받은 환자를 증상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도 “자원봉사자와 현지 주민 등이 매뉴얼에 따른 방제작업에 동원된 것이 아닌, 충분한 장비 없이 성급하게 방제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피해지역 주민을 빨리 대피시키고 전문가를 동원, 환경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분야가 큰 주민들일수록 정신적 상실감·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치료 대책 등도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유명무실’ 시스템 개선해야=이번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로 드러난 부실한 시스템 개선도 시급

다는 지적이 많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25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 9.6kt의 기름이 유출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모두 153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시기 유출된 기름만 64.1kt에 달한다. 이 때문에 해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현행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난 원유부두는 GS칼텍스 자체 시설로, 국가는 운항중 선박에 VTS(해상관제시스템)를 통해 지도할 뿐”이라며 “접안 시에는 해당 부두 시설주가 관리하고 해무사안 전 인입도 자체적으로 고용,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선박이 부두에 접근할 경우 안전한 접근을 총괄하는 ‘안전 책임자’ 등의 규정이 없어 수십만에 이르는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데도, 도선사의 자체 판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논란이 됐던 해무사의 경우도 지난 1998년 관련법 개정되면서 규정이 완화됐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선박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 마련된 ‘예산운영세칙’ 중 예산 관련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전 운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목포해양대학교 임금수 교수는 “현행 운영세칙에는 접안시 예산의 힘을 나타내는 동력 부분만 규정될 뿐, 언제 어디서 예산이 선박을 인양할지 여부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접안 환경이 해양 환경이나 선박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산 접안 거리나 속력 등을 표준화시키고 명문화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투자하라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입지

일택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m ² / 76.42m ²
2층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m ² (±179.43평) 분할가능
3층	전문의원 안과·이비인후과 치과·피부성형과	1164.9m ² (±352.38평)
4층	사무실 / 학원	365.58m ² (±106.67평) 216.87m ² (±65.16평) 582.45m ² (±174.84평)
5층	아스터어학원 유투엠수학학원	임대확정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